

김 지사, 직원들과 도정운영 추진상황 소통

'4월 소통의 날' 행사 시작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명사 초청 '국가예산' 특강·이달의 혁신주인공 시상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특별법 특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4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행사에 앞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에 이어 명사 초청 특강 및 이달의 혁신주인공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

혔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시행한 지가 만으로 3개월이 지났다. 기존에 하던 일에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들이 추가 되었지만, 도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전북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북자치도에서 특례를 만들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다. 4~5월 본격적으로 부처 예산이 짜여지고 5월말까지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 5~8월 기재부 심의를 거쳐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정부예산 안에 담기지 않은 것을 담고, 또 삭감하려고 하는 국회를 상대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관련 업무를 오래 하신 전문가를 초청하게 되었다"며 임우근 수석전문위원을 초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임우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지자체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

다.

임 수석은 "지자체에서 국가예산을 요구할 때 보통 세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째는 정부안에 반영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재부에 반영되지 않고 해당 부처에만 반영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회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가장 쉬운 것은 정부안에 반영하여 요구하는 것이며, 그게 힘들면 부처를 설득하여 해당 부처에서도 반영을 해야 수월해지는데, 부처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북의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재언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보다 생활 속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국가예산을 요구할 때는 국가적 사업으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작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를 고려하고, 중앙부처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사업 설명자료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노사가 함께하는 4월의 혁신 주인공 시상에서 이달의 좋은근로자 선정이 된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에게 상장과 캐리커처 등이 수여됐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4월 소통의 날 행사'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와 직원들이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푸른바다 조성 위한 유관기관 한마음

도, 민·관 합동 협의회 발족... 해양폐기물 처리 공동 대응 정책제안·수거 체계 등 기관별 실적 정례적으로 공유키로

전북자치도가 지속가능한 푸른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에서 도내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단체의 체계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 협의회'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해양환경 등 관련분야 정책발굴 △해양폐기물 구역별 수거·처리 △불법투기 감시·모니터링 △합동수거 캠페인·홍보 등 4개 사항

에 대한 기관·단체별 주요 역할과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해양폐기물 위치에 따라 수거·처리 관리주체가 이원화된 것에 대응해 각 기관별 처리 물량 등 실적을 정례적으로 공유한다.

또한,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과 '국제연안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에 관련 기관·단체들이 함께 자율적으로 합동 해양폐기물 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마철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쓰레

기 발생 시 기관별 작업선, 인력, 집하장, 물품 등 해양쓰레기 수거자원을 협조·공유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연안 시·군, 군산해수청, 해양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인 단체 등 20개 유관기관·단체들이 참석했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우리가 바다와 해안가를 깨끗하고 정화하는 일이어말로 국민과 내가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해양폐기물 저감대책 실효성이

한층 높아지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상구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관리센터장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양폐기물 수거에 대한 행정 인력과 예산 한계를 극복하고자 반려해변 제도를 기업·학교·단체 등에 도입·확산되도록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반려해변 제도를 신규정책에 반영해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간 협력을 확장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첫단추

전북특별자치도,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현판식

늘어나는 반려동물 산업(펫코노미) 수요와 시장 규모 확대에 대응해 전북을 동물용의약품 산업 일번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첫 단추를 끼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첫 단계인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에 대한 현판식을 개최하고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부터 시제품 생산지원,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에 이르기까지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계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인공수정

연구지원 보존센터 구축 등 총 4단계로 추진되며,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 1,150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개소를 알린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는 동물용의약품 품목 허가시 반드시 요구되는 효능·안전성 평가를 시험하는 전문기관이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다음 단계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관련 실시 설계 용역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3단계 사업인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 3월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가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 중이다"며, "이를 통해 도내 바이오산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체계 구축 나서

인권경영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전북자치도가 도 인권비전인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사회복지시설(26개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경영 교육과 컨설팅은 국

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설별 인권경영 수준 진단과 인권리스크 감소를 위해 추진된다.

도는 인권경영에서 중요한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과 평가, 인권침해 구제사태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한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경찰, 전국최초 순찰 앱(App) 개발 시범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순찰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해 범죄 취약지 야간 순찰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지원을 위해 '주민과 통(通)하는 순찰지원 앱(APP)'을 자체 개발해 현장시연을 보이는 등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여성 등 치안약자 대상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해 '야간·심야 시간대 범죄취약지 순찰 강화'에 대한 업무지휘를

발령한 데 이어 지역 치안환경의 이해도가 높은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을 지원·강화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순찰지원 앱(APP)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지역별 범죄위험등급 데이터와 주민들이 순찰을 요청한 2,000여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효율적인 순찰경로를 생성하는 과학시간 기반 프로그램으로, 전주와 김제, 임실, 부안 등 4개 시·군에서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현장시연 및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추후 보완·반영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